
[제3주제]

남북한의 동학농민전쟁 연구와
전봉준 장군의 이미지 비교

배 항 섭
(성균관대)

[연구발표 제3주제]

남북한의 동학농민전쟁 연구와 전봉준 장군의 이미지 비교

배항섭(성균관대)

< 목 차 >

- I. 머리말
- II. 북한학계의 연구 동향
- III. 고부봉기까지의 전봉준
- IV. 동학농민전쟁과 전봉준
- V. 맺음말

I. 머리말

과거의 경험들에 대한 기억을 공유한다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남과 북 간에는 다행히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기억이라는 면에서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지만, 분단 체제가 70년 이상 이어지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이나 인식 면에서 크고 작은 차이들도 쌓여가고 있다. 양자 간의 차이는 현대사 쪽에서 가장 심하지만, 근대사 분야에서도 차이가 나는 면들이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동학농민전쟁, 그 중에서도 전봉준에 대한 인식 내지 이미지 면에서 남과 북의 역사학계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¹⁾ 다만 남북을 전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지면이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 측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남한학계에서도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전봉준에 대한 인식이나 이미지 면에서 차이점이 없지 않으나, 여기서는 남한학계의 연구는 통설적 견해를 중심으로 간단히 언급하는 방식으로 남북의 인식을 비교해보고자 한다.²⁾

II. 북한학계의 연구 동향

북한학계의 동학농민전쟁 연구동향도 시기에 따른 변화가 보인다.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북한학계의 관심은 일제시기 사회경제사학자들의 연구를 이어받아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50년대 후반에 동학과 농민전쟁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촉발되어 이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동학농민전쟁의 성격이나 동학과 농민전쟁의 관계 등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1980년에 발간된 『조선전사』(제13권)는 논쟁이 일단락된 뒤 그 동안 북한학계의 농민전쟁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서술한 것으로 농민전쟁에 대한 북한학계의 이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전사』(제13권) 가운데 1894년 농민전쟁 부분 목차는 다음과 같다.

- 1) 북한학계의 동학농민전쟁 연구 경향에 대해서는 양상현, 「1894년 농민전쟁과 항일의병전쟁」, 『남북한역사인식비교강의(근현대편)』, 일송정, 1989 ; 하원호, 「부르주아민족운동의 발생 발전」,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 인식(2)』, 한길사, 1990 ; 조민, 「북한학계의 동학농민혁명 평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쟁점』, 집문당, 1994 ; 김선경, 「농민전쟁 100년, 인식의 흐름」, 역사학연구소, 『농민전쟁 100년의 인식과 쟁점』, 거름, 1994 ; 배항섭, 「최근 북한학계의 동학농민전쟁 연구동향과 특징」, 『민족문화연구』 46, 2007 등이 있다.
- 2) 전봉준에 대한 남한학계의 통설적 견해에 입각한 최근의 연구로는 이이화, 『전봉준, 혁명의 기록』, 생각정원, 2014 참조

제7장 1894년(갑오)농민전쟁	(289)
제1절 고부농민폭동과 농민전쟁의 시작	(291)
고부농민 폭동	(291)
농민전쟁의 시작	(295)
제2절 농민군의 전주점령. 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한 내외반동들의 결탁(302)	
농민군의 승리적진격, 전주점령	(302)
전주성방어전. 농민전쟁을 반대하는 내외반동 세력의 결탁 ..	(309)
제3절 전주 《화의》와 농민군의 개혁강령. 집강소의 설치, 그의 시책	(313)
전주 《화의》와 농민군의 개혁강령	(313)
집강소의 설치, 그의 시책	(317)
제4절 농민전쟁의 재발. 일제침략자를 반대한 농민군의 투쟁	(322)
농민전쟁의 재발	(322)
농민군에 대한 일제침략군과 정부군의 탄압책동의 강화.	
일제침략자를 반대한 농민군의 투쟁	(329)
제5절 일제침략군과 정부군의 연합세력을 반대한 농민군의 공주대격전.	
농민전쟁의 역사적 의의	(335)
공주대격전	(335)
갑오농민전쟁의 실패원인과 그 역사적 의의	(348)

『조선전사』를 통해 볼 때 북한학계의 동학농민전쟁 이해에서 보이는 큰 특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894년을 포함하는 1860년-1919년까지를 부르주아민족운동으로 시기구분하고 동학농민전쟁을 포함한 이 시기 농민들의 반봉건반침략투쟁에 대해 역사발전의 동력이라는 점에서 중요시하고 있지만, 이 시기의 가장 핵심적인 흐름을 갑신정변에서 갑오개혁으로 이어지는 부르주아개혁운동에 두고 있다. 때문에 농민전쟁의 역사적 위상도 부르주아개혁운동의 본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부르주아개혁운동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거나 그것을 고무하고 추동한

부차적인 흐름으로 이해되었다.³⁾ 그러나 이와 같이 농민전쟁을 민족부르주아운동의 틀 안에서 파악하고, 또 지도역량인 민족부르주아운동에 종속된 추진역량으로 이해함에 따라 농민전쟁이 가지는 고유한 역사적 의미에 대한 접근은 차단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남한학계와 달리 개화파의 부르주아민족운동과 농민전쟁의 차별성도 고려될 여지가 없었다.⁴⁾

둘째, 농민전쟁과 동학사상의 관련성을 부정적으로 이해한 점이다. 동학의 조직이 고립분산적이던 농민들의 투쟁을 농민전쟁이라는 대규모 투쟁으로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하였고, 동학사상에도 농민대중의 반봉건 반침략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다(『조선전사』 13, 52면). 그러나 이미 1893년 보은집회 시기부터 동학과 농민들의 투쟁을 구별하고자 하였다. 또한 농민전쟁 시기의 동학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사회적 의식발전에 해독을 끼치는 환상적인 종교미신적 요소 때문에 오히려 농민군의 ‘구국투쟁’에 해독을 끼쳤다고 하여 동학이 농민전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동학사상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민전쟁의 발발 배경이나 전개과정을 설명하는 데도 동학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으며, 언급할 경우에도 그것이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서술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북학학계의 연구 동향은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 김일성의 사망과 핵문제를 둘러싼 위기의 고조 등 국내외적인 환경이 격변하는 1990년대에 들어 큰 변화를 보인다. 특히 위에 언급한 1980년대까지의 연구에서 보이는 특징 가운데 두 번째 측면에서 선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새로운 연구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성과가 바로 1994년 동학농민전쟁 100주년을 맞아 발간된 『갑오농민전쟁 100돌기념논문집』(과학백과사전출판사, 이하 『논문집』)과, 최근에 발간된 『동학의 애국애족사상』(이하 『사상』)이다.⁵⁾ 두

3) 『조선전사』 13, 1980, 290, 321, 353-354면.

4) 예컨대 농민전쟁이 “근대화”를 추구하였다는 점은 남한학계에서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지만, 남한학계에서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 등 개화파의 움직임을 “위로부터의 길”, 농민전쟁을 “아래로부터의 길”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과 달리 북한학계에서는 양자 간에 특별한 차이를 두지 않았다(하원호, 앞의 글, 112면).

저작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갑오농민전쟁 100돌기념논문집』>

1. 갑오농민전쟁발생의 사회경제적요인과 역사적 필연성(원종규, 4면)
2. 최제우와 동학(리종현, 22면)
3. 동학의 철학적기초와 정치적리념(량만석, 40면)
4. 동학운동과 삼례, 보은 집회투쟁(리택권, 63면)
5.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김길신, 80면)
6. 전주화의와 집강소의 개혁활동(박득준, 96면)
7. 갑오농민군의 거족적항쟁호소와 정부의 대응(김은주, 111면)
8. 갑오농민군의 반일투쟁(김경수, 125면)
9. 일본군국주의는 갑오농민전쟁의 교살자(강석희, 141면)
10. 갑오농민전쟁의 성격과 특징(허종호, 157면)
11. 갑오농민전쟁의 역사적경험과 교훈(박영해, 180면)
12. 일제의 천도교분열와해책동과 그 후과(최태진, 194-209면)

<『동학의 애국애족사상』>

머리말(3면)

제1장 동학사상의 애국애족적성격을 규제한 사회력사적요인(5면)

제1절 동학사상의 애국애족적성격을 규제한 내적요인(5면)

제2절 동학사상의 애국애족적성격을 규제한 외적 요인(11면)

제3절 동학사상의 발생(18면)

제2장 동학사상의 철학리론적 기초(27면)

제1절 <지기설>(27면)

제2절 <인내천> 사상(35면)

제3절 <개벽>에 관한 사상(43면)

5) 이하 『갑오농민전쟁 100돌기념논문집』과, 『동학의 애국애족사상』에 대한 분석은 배향섭, 앞의 글 참조

제3장 동학의 애국애족적 정치리념(51면)

제1절 <보국안민>에 관한 사상(52면)

제2절 <광제창생>, <지상천국>의 사회정치리념(64면)

제4장 동학의 애국애족적 륜리도덕 견해(76면)

제1절 인간평등의 륜리적 견해(77면)

제2절 화해와 단합을 위한 도덕(86면)

제5장 반봉건반침략투쟁에서 동학도들의 활동(96면)

제1절 갑오농민전쟁과 동학(97면)

제2절 3.1인민봉기와 동학(113면)

제3절 항일무장투쟁 시기 천도교인들의 활동(124면)

제4절 조국광복 후 평화적 건설 시기와 조국해방전쟁 시기 천도교인들의 활동(139면)

제6장 동학의 역사적 지위(154면)

맺는말(164-167면)

앞의 책은 원종규 외 11인의 논문을 엮은 것으로 북한학계의 동학농민전쟁 연구성과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가장 많은 필자가 참여한 논문집이다. 이 『논문집』은 『조선전사』에서는 전혀 인용하지 않았던 『천도교서』나 『천도교리독본』등 교단 측 자료와 교리해설서를 적극인용하고 있으며, 이전 시기에는 문서 제목만으로 밝히던 「선유방문병동도상서소지등서」, 「선봉진정보첩」, 「갑오약력」, 「전봉준공초」 등의 전거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된 『동학란기록』(상, 하)을 인용하여 밝히고 있으며, 일부의 연구에서는 페이지까지 기록하여 밝히고 있는 점도 매우 주목된다.⁶⁾

6) 『논문집』의 모든 필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을 쓴 김길신(준박사)와 「갑오농민군의 거족적 항쟁호소와 정부의 대응」을 쓴 김은주(준박사)의 경우 일부 전거에 ‘《동학란기록》하 535 페이지’, 혹은 ‘《선봉진정보첩》갑오 11월 12일, 《동학란기록》하권, 185-186페이지’ 등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갑오농민전쟁의 성격과 특징」을 쓴 허종호(후보원사 교수)의 경우 페이지는 밝히지 않고 ‘《동학란기록》(하) 《선봉진정보첩》, 《갑오약력》 《동학란기록》(상)’ 등의 형태로 『동학란기록』을 전거로 인용하고 있다.

『사상』은 앞의 책에도 「동학의 철학적 기초와 정치적 리념」이라는 논문을 실은 바 있는 량만석이 집필한 책이다. 이 책은 『논문집』에 실린 연구성과들을 토대로 하면서도 동학사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학사상이 농민전쟁에 미친 영향을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관심도 소홀하던 이전시기에는 볼 수 없던 저작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학계의 동학농민전쟁 연구에서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은 동학사상에 대한 관심 고조, 동학농민전쟁의 발발과 전개에서 수행한 동학의 역할 강조, 동학농민전쟁의 애국애족적 성격과 거족적 투쟁 강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동학과 동학교도들의 활동을 동학농민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일제 하의 “항일무장투쟁”과 해방 후의 “조국건설”, 나아가 남한에서의 “반미반파쇼투쟁”으로까지 연결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는 점은 이전시기에 볼 수 없던 중요한 차이점이다. 또한 최근 북한학계에서는 역사분야에서만 아니라 철학분야에서도 동학과 천도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예컨대 이돈하의 <신인철학>에 대해 “우리 민족을 도덕적으로 완성시켜 새로운 인간을 만들고 <지상천국> 건설과 그 실현방도를 사상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내놓은 우리나라 근대철학사상의 한 조류”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⁷⁾

여기서는 이상의 저작 가운데 『조선전사』와 『논문집』에 실린 글 가운데 전봉준의 인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김길신의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80-95면)을 중심으로 북한학계의 전봉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고부봉기까지의 전봉준

7) 한분희, 「도덕의 본질에 대한 「신인철학」의 견해」, 『철학연구』 71, 1997[정혜정, 「동학과 주체사상의 비교를 통한 탈분단시대의 교육이념 연구」, 『정신문화연구』 2004년 봄호(통권 94호)에서 재인용].

북한에서는 최초의 교조신원운동이라 할 수 있는 1892년 10월의 공주집회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삼례집회부터 서술하고 있다. 전봉준이 동학에 입도한 것은 1888년 손화중을 통해서인 것으로 이해하면서도(김길신, 83) 남한학계와 달리 “교조신원운동” 시기 전봉준의 역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전봉준의 위명은 보은 집회 이후 교도들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 관의 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길신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보은집회 투쟁 이후 동학농민들이 제각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자 봉건 통치배들은 그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하고 탄압해 나갔다. 이러한 형편에서 동학 중하층 인물들은 자기 산하지역의 동학농민들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단결하여 투쟁할 데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다. 그리고 고을에서 달려든 장교, 사령이라든가 진영이나 감영, 서울에서 내려온 포교들이 자기의 동료들을 체포해갈 때에는 즉시 린집 포, 접들에 알리고 서로 힘을 합쳐 그들을 구원하는 투쟁을 벌리게 하였다. 동료들을 구원하기 위한 동학농민들의 투쟁은 당시 《충청도나 경상도보다 전라도에서 먼저 진행되었으며 전라도에서도 정읍의 대접주 손화중포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동학사), 영창서관, 1940년판, 87페이지).

이 모든 사실은 갑오농민전쟁전야에 전국각지에서 일어난 우리 인민의 반침략반봉건투쟁이 전라도를 중심으로 급격히 장성하였으며 이 지역 동학 중하층 인물 들속에서 뛰어난 인물이 나오기 마련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전봉준이 농민군지휘자로 등장한 것은 다음으로 그의 남다른 기질과 관련되어 있었다. (중략)

사발통문이 돌려진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894년 1월 10일 전라도 고부에서는 전봉준의 지휘 밑에 농민폭동이 일어나고 얼마 후 봉기는 승리적으로 결속되었다. 그리하여 동학접주시기 전봉준의 남다른 기질이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890년대 초 인민들의 반침략반봉건투쟁의 급격한 장성과 전봉준의 남다른 기질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그가 갑

오농민전쟁시기 농민군의 지휘자로 등장하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⁸⁾

이는 역시 늦어도 1893년 11월의 삼례집회 때부터 의송을 고정(告呈)하는 등 주요인물로 등장한 것으로 이해하는 남한학계와 다른 점이다. 또 전봉준이 고부봉기를 주도한 지도자라고 한 점에서는 남한학계와 동일하지만, 전봉준이 지도자로 성장한 중요한 요인으로 아버지 전창혁의 영향을 들고 있는 점은 이 부분에 대해 크게 언급하지 않는 최근 남한 측의 연구와 차이가 난다.

전봉준은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였을 뿐 아니라 레의가 밝고 인망이 또한 높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평시에 마을사람들과 별로 상종하지는 않았지만 동리에 경사나 상사가 나면 의례히 찾아가 축하와 조의를 표하곤 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사람들은 그를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알고》 매우 존경하였다. 전봉준의 이러한 남다른 기질은 아버지의 영향 밑에서 싹튼 것이었다.⁹⁾

고부봉기의 배경에 대해서도 전창혁이 1893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반대하는 등소를 하였다가 조병갑에게 죽음을 당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¹⁰⁾ 이 역시 관련 사실을 傳說 정도로 이해하는 남한 학계와 다른 점이다.

당시 조병갑은 마을농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대신 항소투쟁에 나선 농민대표들을 《란민》으로 몰아대고 그 투쟁의 앞장에 섰던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을 잡아가두고 학살하였다. 이것은 전봉준에게 있어서 커다란 충격이었다.

8) 김길신, 82-84면

9) 김길신, 83면

10) 『조선전사』에서는 전창혁이 학살당한 사실만 언급하고 있다(『조선전사』 13, 292).

전봉준은 1893년 11월 이미 친교가 깊은 동학의 접주 송대화, 최경선을 비롯하여 20명의 동료들과 함께 사발통문을 만들어 돌리며 농민들을 봉기에로 추동하였다.¹¹⁾

한편 고부봉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전봉준은 “고부지방 인민들의 분노가 고조에 달하고 1893년부터 전주, 익산 등지에서 폭동이 연달아 일어난 것을 절호의 계기로 마침내 인민들은 대규모의 폭동으로 이끌었”으며, 또 “광범한 인민들을 묶어세우기 위하여 정익서, 김도삼 등을 폭동의 지휘자로 인입하는 한편 동학의 지방조직도 리용하여” 봉기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였다.¹²⁾

그러나 실패하기는 하였지만, “고부농민폭동은 그 지휘자인 전봉준과 광범한 농민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을 주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동학의 조직을 리용한다면 피압박대중을 투쟁에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봉준은 동학의 기층조직인 《포》와 《접》을 리용하여 이웃지방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투쟁을 당시의 《민란》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1만 여명의 군중이 참가한 큰 폭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¹³⁾

IV. 동학농민전쟁과 전봉준

전봉준이 농민군 최고지도자였다고 보는 것은 남한 학계와 마찬가지로 『조선전사』에서는 “전봉준은 봉기한 농민들로 부대를 편성하고 그 지휘부로서 호남창의대장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전봉준이 농민군대장으로, 손화중, 김개남이 부대장격인 총관령으로 되었다.”라고 서술하였다. 또 동학농

11) 김길신, 83-84면

12) 『조선전사』 13, 292면

13) 『조선전사』 13, 294면

민전쟁에서 전봉준이 수행한 가장 중요한 역할로는 “전쟁 전 기간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 각층** 인민들을 일정하게 각성키시고 투쟁으로 불러일으킨 것”을 들고 있다.¹⁴⁾

이미 이전부터도 제2차 농민전쟁에서는 “농민뿐 아니라 **각계각층** 인민들이 망라되었으며, 지어 일부 애국적인 **량반들과 유생들**, 아전, 관군의 병사들도 참가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고,¹⁵⁾ 제1차 기포 때도 광범위한 인민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농민전쟁에 참여시켰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¹⁶⁾ 그러나 최근에는 “전봉준은 갑오농민전쟁 초기부터 봉건적 악정과 외세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에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불러일으켰다.” 혹은 “전봉준은 갑오농민전쟁의 초기뿐 아니라 그 후에도 중요한 계기마다 격문을 내고 보다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농민전쟁으로 불러일으켰다”¹⁷⁾라는 점을 수차례나 언급하면서 이미 제1차 농민전쟁 시기부터 전봉준이 전민족적 투쟁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는 남한 학계와 미묘한 차이가 있는 점이다. 남한학계에서도 ‘전민족적’ 투쟁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대체로 제2차 기포에 대해서이다.

이 같이 거족적 투쟁을 불러일으킨 전봉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최근 들어 이전과 달리 동학의 애국애족 사상을 강조하는 연구경향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논문집』에서는 농민전쟁의 교훈으로 세 가지 점을 들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교훈으로 ‘민족적 원수’에 대해서는 ‘견결히’ 투쟁해야만 민족적 독립을 수호할 수 있다는 점, 외세의존은 매국배족의 길임을 가르쳐 준다는 점을 드는 등 농민전쟁의 애국애족적, 반침략적 측면, 거족적 단결과 투쟁을 강조하고¹⁸⁾ 나아가 농민전쟁의 애국애족 정신을 3.1운동은 물론 일제하 ‘항일무장투쟁’과 해방 이후의 국가건설 과정, 한국전쟁시기까지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다. 일제하와 해방 이후까지를 연결하여 동학의 애국애

14) 김길신, 85면

15) 『조선전사』 13, 325면

16) 『조선전사』 13, 297-298면

17) 김길신, 85-87면

18) 『논문집』, 183-191면

족사상을 높이 평가한 것은 1990년대 이후 동학과 농민전쟁에 대한 북한학계의 연구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한편, 전봉준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면서 농민군이 “반봉건”의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예컨대 『조선전사』에서는 1894년 3월 25일 농민군이 내놓은 <행동강령>(농민군의 四大名義)을 소개하면서²⁰⁾ “농민군의 이 행동강령은 봉건적 충효사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제한성은 있으나 그들의 투쟁목적이 반침략 반봉건적 투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였다.²¹⁾ 이는 남한학계의 일부 연구와도 궤를 같이 하지만, 남한학계와 달리 농민군의 반봉건 투쟁이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의 영향을 받아 심화되어 나갔다는 이해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농민군의 개혁강령과 집강소의 활동은 사회발전의 질곡으로 된 봉건제도를 무너뜨리는 투쟁이 농민대중에 의해서 줄기차게 심화되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농민들이 투쟁과정에서 각성하고 특히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의 사상적 영향을 받게 된 사정과 관련되어 있었다. 당시<희생된 김옥균의 혼이 폭동자들 가운데 나타났고 또한 지금까지 무적의 대군을 지휘하고 있다.>(《크라스노이 아르히브》(로문)1894년 6월 8일 도쿄 주재 로씨야 공사 히프로워가 로씨야 외교부장 기르스에게 보낸 편지)는 말이 국외에까지 널리 퍼지고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²²⁾

그렇다하여 전봉준이 봉건지배계층의 기만이나 회유책동에 넘어간 것은

19) 배항섭, 앞의 글, 참조

20) 『大韓季年史』, 『총서』 4, 363쪽. 원래의 내용은 ① 不殺人 不殺物(사람을 죽이지 않고 재물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② 忠孝雙全 濟世安民(충과 효를 함께 갖추어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히 한다) ③ 逐滅倭夷 澄清聖道(일본 오랑캐를 몰아내 없애고, 성인의 도리를 맑고 깨끗이 한다) ④ 驅兵入京 盡滅權貴 大振紀綱 立定名分 以從聖訓(군사를 몰아 서울로 들어가 권세 있고 지위가 높은 자들을 모두 없애버린다. 기강을 크게 떨치고 명분을 바르게 세워 성인의 가르침을 따른다) 등이지만, 『조선전사』에서는 마지막 조항을 “정치풍교가 모두 파괴되고 퇴폐하여 사람들이 혁신을 원하는 이때에 이 거사를 맞아한다”라고 해석하였다(『조선전사』 13, 298면).

21) 『조선전사』 13, 299면

22) 『조선전사』 13, 321면

아니라고 이해하였다. 예컨대, <전주화약>에 관해 『조선전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당시 전봉준은 봉건 통치배들의 기만과 회유책동에 결코 룡락당하지는 않았으나 나라와 민족 앞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농민군자체의 형편을 고려하여 전주성을 주동적으로 내주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의 반역적인 외세에 의존하는 사대주의적 책동으로 하여 중,일 침략군이 기여들어 나라의 자주권이 유린당하게 되는 엄중한 위험을 빚어냈다. ...그리하여 전봉준은 력량을 보존하면서 일단 전주성에서 철수하였다가 유리한 시기를 기다려서 다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인정하였다.²³⁾

김길신 역시 전주점령은 농민군이 거둔 가장 큰 정치군사적 승리였고, 그것은 농민군이 장차 서울으로 진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열어놓은 쾌거였지만, 결국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해산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농민군은 전주점령 후 서울제로의 진격을 일단 중지하였다. 그 이유는 봉건 통치배들이 외세를 끌어들이므로써 나라와 민족 앞에 엄중한 위기가 조성된 데다가 봉건 통치배들이 《화의》를 제기해 왔기 때문이었다. 전봉준은 급변한 정세 하에서 봉건 통치배들의 회유책등을 일정하게 간파하였지만 나라와 민족 앞에 조성된 엄중한 위기를 생각하여 전주에서 정부군 측과 《화의》를 맺었다.²⁴⁾

그러나 전봉준이 반봉건 사상 면에서 한계를 가졌다는 점, 그것이 농민전쟁의 패배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김길신의 이해는 다음과 같다.

23) 『조선전사』 13, 314-315면

24) 김길신, 91면

전봉준은 갑오농민전쟁에서 농민군지휘자로서의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으나 농민전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지 못하였다. 전봉준은 시대적 및 계급적 제한성으로 하여 정확한 투쟁 강령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농민전쟁을 옳게 지도할 수 없었다. 갑오농민전쟁시기 전봉준의 제한성은 무엇보다도 봉건 군주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전봉준은 갑오농민전쟁 초기에 격문과 창의문을 통하여 농민군의 투쟁 목표는 《인민들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함》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자면 《안으로는 탐학(탐욕이 심하고 포악한 것-인용자)하는 관리들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국왕에 대해서는 《인효자애하고 총명》한 인물로 내세우고 모두다 《임금의 덕화》를 입기를 바란다고 하였다(《동학사》, 영창서판, 1940년판, 109~112페이지).

격문과 창의문에 반영된 이러한 내용들은 전봉준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그의 시대적 및 계급적 제한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전봉준은 농민군지휘자로서 투쟁의 길에 나서기는 하였으나 당시 인민들을 못살게 굴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것이 개별적인 봉건관리들이라고만 생각하였지 그 근본화군이 국왕을 우두머리로 하는 봉건제도 자체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더욱이 그는 농민전쟁 초기에 국왕이 농민군을 탄압하기 위한 모의를 벌이고 외국군대까지 끌어들이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로부터 전봉준은 전라도 여러 고을들을 치면서 악질적인 몇몇 관리들을 처단하고 이제 《어진 관리》가 나오면 인민들의 처지도 개선되고 나라의 위기도 극복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전주 화의 이후에는 전라도 전 지역의 농민군의 자치기관으로서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을 실시하면서도 악질적인 관리들을 처단하는데 그리고 국왕을 우두머리로 하는 봉건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집어엎지 못하였다.²⁵⁾

25) 김길신, 93-94면. 이러한 인식은 『조선전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조선 사회발전의 낙후성으로 말미암아 농민군의 투쟁에서 선진계급의 령도를 받지 못한 것은 갑오농민전쟁을 실패로 돌아가게 한 주요한 요인의 하나였다.(중략) 농민들이나 수공업자들은 산산이 흩어져 개별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집단주의정신도 부족하고 조직성도 약하며 투쟁정신도 약하므로 그들 자신의 투쟁만으로써는 사회적 해방을 이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농민의 사회적 해방과 자유를 실현

시대적, 계급적 한계에 따라 전봉준의 ‘반봉건’ 의식에 한계가 있었다는 북한학계의 지적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조선봉건 왕조 말기 민족주의운동이 남긴 교훈은 첫째로, 인민대중의 정의를 위한 그 어떤 투쟁도 탁월한 수령과 선진계급의 령도를 받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발전의 미숙성으로 하여 반일투쟁을 이끌만한 지도계급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민족 자본가들도 부르주아 계급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세력이 미약하여 반일투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지 못하였다.

개화파들과 혁신관료들도 인민대중을 떠나 상층운동에 머물러있었으며 그나마도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을 계기로 하여 조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환경에서 봉건유생들과 일부 관리들이 의병장으로 나섰으나 그들은 의병투쟁을 통일적으로 지휘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중략)

당시 민족주의운동을 지도하던 상층세력은 투쟁을 조직 지도함에 있어서 자기의 계급적 처지와 리해관계, 그로부터 산생되는 제한성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한 근본적인 제도교체라는 높은 투쟁구호를 내세우지 못하고 반동 통치배들의 우두머리인 국왕에게 환상을 걸었을 뿐 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리익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옳은 투쟁강령과 목표를 내세우지 못하고 봉건적인 충군사상에 기초하여 일제와 친일주구들을 반대할 데 대한 문제와 상층개혁의 방법만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당시의 운동들은 종당에는 민족주의 운동의 총적인 단결을 이룰 수 없게 하였다.²⁶⁾

하자면 반드시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중략) 갑오농민전쟁의 규모와 기세는 전례 없이 크고 격렬하였으나 투쟁을 봉건제도의 철폐문제와 결합시키지 못함으로써 중세기적 농민전쟁의 결합을 다시금 반복하였다. 농민군은 토지를 골고루 경작할 데 대한 문제는 제기하였으나 봉건적토지소유제도의 근본적인 철폐문제는 내놓지 못하였고 탐관오리들의 청산문제는 부르짖었으나 부패한 봉건통치제도자체를 뒤집어엎는 문제는 생각하지 못하였다(『조선전사』 13, 350-351면).

26) 최명원, 「조선봉건왕조말기 민족주의운동이 남긴 교훈」, 『력사과학』 245, 2018, 62면.

V. 맺음말

동학농민전쟁과 전봉준에 대한 북한학계의 이해에서 남한학계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점은 농민군과 전봉준의 '반봉건성'이 가진 한계를 좀 더 신랄하게, 또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농민전쟁이 남긴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로 이해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최근 들어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한 지적이 보이지 않기도 한다. 동학사상을 주로 다룬 글이기는 하지만, 2004년 『동학의 애국애족사상』을 쓴 량만석은 동학농민전쟁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갑오농민전쟁은 그 규모와 격렬성에 있어서 최고봉을 이룬 농민전쟁으로서 19세기 아시아 반제민족해방 투쟁의 새벽종을 울린 하나의 역사적 사변이었으며, 중국의 태평천국농민전쟁, 인디아의 시파이 폭동과 더불어 아시아 3대항전으로 특기할 만한 것이었다. 동학은 이 역사적인 갑오농민전쟁에 무시할 수 없는 자욱을 남겼다.(중략)

특히 전봉준은 고부지방 인민들의 투쟁을 농민전쟁으로 이끌어가고 손화중, 김개남을 비롯한 선각자들과 연계 밑에 각지에서 분산적으로 진행된 농민들의 투쟁을 하나로 합류한 전국적인 농민전쟁을 발전시키는 데서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중략)

갑오농민전쟁은 이처럼 봉건 통치배들과 외래침략자들의 착취와 압박, 지배와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근로 인민 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에 따라 일어난 일대 사회적운동이었다.²⁷⁾

그러나 앞서 2018년에 쓴 최명원의 글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른바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에 근거한 역사인식과 서술기조는 여전히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역사인식의 전형은 농민전쟁의 의의에 대한 다

27) 량만석, 『동학의 애국애족사상』, 사회과학출판사, 2004, 97-103면

음과 같은 『조선전사』의 서술에서 잘 드러난다.

“1894년 나라의 근대화를 위한 부르쥬아 혁명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우리 나라 사회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의 반영인 근대화로의 지향은 계속 장성하였다. 농민전쟁은 봉건적 질곡에서 벗어나려는 수백만 농민대중의 강렬한 지향의 뚜렷한 반영이었다. 농민군은 봉건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부문에 걸쳐 농민통치의 악폐를 근절하고 농민대중의 사활적인 요구와 념원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개혁강령을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집강소와 같은 기구를 조직하고 그들 자신이 자기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다. 농민군의 줄기찬 반봉건투쟁은 봉건제도를 밑뿌리로부터 뒤흔들어놓았을 뿐 아니라 그 림종의 시각을 다그침으로써 나라의 근대화를 위한 민족운동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321)

그리하여 갑오농민전쟁은 우리 나라에서 근대화 운동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농민전쟁에서 과시된 피압박대중의 거대한 힘은 외래침략세력과 국내반동세력의 연합에 의하여 위축되어온 혁신세력의 개혁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고 마침내 부르쥬아 개혁을 낳게 하였다(325).²⁸⁾

이러한 인식은 농민군과 개화파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도 엿보인다. 우금치전투에서 패배한 농민군들은 노성에 머물면서 다시 진영을 수습하려 하였다. 농민군은 <東徒倡義所>의 이름으로 11월 12일 京軍과 營兵, 吏校 및 市民에게 알리는 글을 순한글로 고시문을 내걸어 斥倭와 斥化를 위해 동심협력할 것을 호소하였다. 거기에는 “방빅수령(方伯守令)이 다 기화중 쇼속으로 인민을 무휼(撫恤)ᄃᆞ지 안이코 살륙(殺戮)을 죠하ᄃᆞ며 싱녕(生靈)을 도탄(塗炭)ᄃᆞ미 이제 우리 동도가 의병을 드려 왜적을 쇼멸ᄃᆞ고 기화를 제어ᄃᆞ며 道정(朝廷)을 청평(淸平)ᄃᆞ고 스직(社稷)을 안보ᄃᆞ시”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 이 내용은 농민군의 반일의식을 매우 잘 드러내는 구절이다. 이에 대해 『조선전사』에서는 굳이 註를 달아 “농민군이 개화를《제어》한다고 한

28) 『조선전사』 13, 321면, 353면.

것은《개화》를 표방하면서 외적과 결탁하는 것을 반대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었다.”고 해석해 놓았다.²⁹⁾

이는 전봉준이나 농민군들이 ‘반봉건’ 의식이라는 면에서 미흡한 점은 분명히 있지만, 상대적으로 ‘역사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인 근대화라는 지향과 가까웠던 개화 내지 개화파 자체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까지 이해하기는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한학계에도 여전히 이와 유사한 발전론적 인식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북한학계의 역사인식은 아직도 마르크스주의의 목적론적 발전론에 매우 강고하게 갇혀 있음을 보여준다.

29) 『조선전사』 13, 334쪽.

<부 록>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

준박사 김길신

<부록>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

준박사 김길신

[80p.]

갑오농민전쟁은 19세기 후반기 우리 인민의 반침략반봉건투쟁에서 그 규모에 있어서나 격렬성에 있어서 최고봉을 이룬 농민전쟁이었으며 아세아 반제민족해방 투쟁의 새벽종을 울린 하나의 역사적 사병이었다.

우리나라 역사발전에 커다란 흔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동양과 세계 정치정세에 큰 영향을 준 이 갑오농민전쟁의 조직지위자가 바로 전봉준이다.

그러므로 전봉준의 농민군 지휘자로서의 등장과정과 전쟁에서 그가 논 역할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은 갑오농민전쟁 전반을 리해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갑오농민전쟁시기 전봉준이 농민군 지휘자로 등장하게 된 것은 당시 인민들 속에서 반침략반봉건투쟁이 급격히 장성한 것과 함께 그의 남다른 기질과 관련된다.

전봉준이 농민군의 지휘자로 나섰던 1890년대 초는 전라도를 비롯한 전국각지 인민들의 반침략 반봉건투쟁이 급격히 양양되던 시기였다.

당시 인민들의 반침략 반봉건투쟁은 외래자본주의 침략 후과와 봉건적 착취가 흑심한 지역에서 가장 치렬하게 전개되었다.

1890년초에 들어서면서 서울에서는 상인들이 외국상인들의 철거를 요구하는 한편 일본침략자들의 룡산《조계지》설치기도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렸다. 또한 제주도 어민들이 일본해적선의 침입과 침략자들에게 어장을 넘겨주려는 봉건 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치렬한 항전을 벌렸다.

또한 이 시기 전국도처에서 농민무장대의 활동이 강화되고 농민축동이 련이어 일어났다.

종전에는 삼남지방에서 많이 일어나던 농민들의 투쟁이 1890년대 초에 이르면서 전국가지로 확대되었다.



갑오농민운동의 종주 전봉준

12개조 폐정개혁안

- 一、道人和政府와 사이에는 宿嫌을 蕩滌하고 庶政을 協力할 事
- 一、貪官汚吏는 그 罪目을 查得하여 一一嚴懲할 事
- 一、橫暴한 富豪輩는 嚴懲할 事
- 一、不良한 儒林과 兩班輩는 懲習할 事
- 一、奴婢文書는 燒却할 事
- 一、七班諸人의 特遇는 改廢하고 白丁頭上에 平議堂을 設去할 事
- 一、齊率諸婦는 改嫁를 許할 事
- 一、無名雜稅는 一井勿施할 事
- 一、官吏採用은 地閥을 打破하고 人材를 登用할 事
- 一、○과 奸通하는 者는 嚴懲할 事
- 一、公私價値勿論하고 已往의 것은 井勿施할 事
- 一、土地는 平均으로 分配할 事

<12개조 폐정개혁안>

- 一、道人和 政府와 사이에는 宿嫌을 蕩滌하고 庶政을 協力할 事
- 一、貪官汚吏는 그 罪目을 查得하여 一一嚴懲할 事
- 一、橫暴한 富豪輩는 嚴懲할 事
- 一、不良한 儒林과 兩班輩는 懲習할 事

- 一. 奴婢文書는 燒却할 事
- 一. 七斑賤人의 待遇는 改善하고 白丁頭上에 平壤笠은 脫去할 事
- 一. 青春寡婦는 改嫁를 許할 事
- 一. 無名雜稅는 一幷勿施할 事
- 一. 官吏採用은 地閥을 打破하고 人材를 登用할 事
- 一. ○과 奸通하는 者는 嚴懲할 事
- 一. 公私債를 勿論하고 已往의 것은 幷勿施할 事
- 一. 土地는 平均으로 分作게 할 事

[81p.]

1885년부터 1893년까지의 기간에 35개 지역에서 봉기가 있었다면 1892년부터 1893년까지 불과 2년 사이에만도 18개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났다.

1890년대 초 인민들의 반침략반봉건투쟁은 삼례와 보은 집회투쟁을 계기로 더욱 급격히 장성하였다.

1892년 11월 동학 2대교조 최시형의 지시에 따라 전라도 삼례역에 모인 수천 명의 동학도인들은 충청도와 전라도 감사에게 《사학》의 류포와 《혹세무민》의 죄목으로 억울하게 참형당한 교조 최제우의 죄명을 벗겨줄 것과 관리들의 포악한 략탈 행위를 금지하고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들이대고 거둬 투쟁을 벌렸다.

동학 상층 인물들은 그 후 서울에 올라가 《교조신원》을 청원하였으며 한편 동학하층농민들은 일본공사관과 미국교회당, 미국인거주지역들에 격문을 붙이며 치열한 투쟁을 벌렸다.

삼례와 서울에서의 투쟁이 실패한 다음에도 동학도인들은 충청도 보은에 모여 또다시 동학포교의 자유를 위한 집회투쟁을 벌렸다.

1893년 3월 10일부터 시작된 보은집회에는 전라도와 충청도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동학도인들을 비롯하여 상인, 하급관리 등 수만 명이 참가하였다.

*《동학사》, 영창서관, 1940년판, 83페이지

집회참가자들은 19개의 《포》로 나뉘어 포기와 《척양척왜》의 기발을 띄우고 기세를 올렸다. 이에 당황한 봉건 통치배들이 《선유사》와 친군 장위영 무력까지 파

견하여 집회를 해산시키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집회참가자들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곳은 비와 굶주림도 이겨가며 20여일 간이나 완강히 싸웠다.

동학의 영향 밑에 련이어 전개된 삼례와 보은 집회투쟁은 봉건통치배들의 집요한 회유와 무력탄압책동 그리고 일부 동학 상층 분자들의 나약성으로 하여 결국 실패하였다.

삼례와 보은 집회투쟁을 계기로 당시 동학 상층의 나약성을 간파한 일부 동학 중하층 인물들은 동학 상층과는 별개로 동학농민들을 규합하며 새로운 투쟁을 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당시 서울주재 한 외국공사는 자기 정부에 보낸 보고에서

[82p.]

《내가 보건대 동학 그 자체는 위험하지 않다. 그들은 평온하고 평화적이며 교조신원이외에 약간의 교화를 실현함으로써 만족할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불평 있는 류량민과 빈민들을 자기 주위에 준비시키고 있다. 아마도 정치적당파의 지휘 밑에 반정부소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정치적당파가 누구인지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아직 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미국외교문서》(영문), 1894년, 16페이지

동학 중하층 인물들 속에서의 새로운 움직임은 보은집회투쟁이후 동학농민들 사이의 단결을 강화하고 체포된 동료들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으로 번져갔다.

보은집회 투쟁 이후 동학농민들이 제각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자 봉건 통치배들은 그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하고 탄압해 나갔다.

이러한 형편에서 동학중하층인물들은 자기 산하지역의 동학농민들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단결하여 투쟁할 데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다. 그리고 고을에서 달려든 장교, 사령이라든가 진영이나 감영, 서울에서 내려온 포교들이 자기의 동료들을 체포해갈 때에는 즉시 린접 포, 접들에 알리고 서로 힘을 합쳐 그들을 구원하는 투쟁을 벌리게 하였다.

동료들을 구원하기 위한 동학농민들의 투쟁은 당시 《충청도나 경상도보다 전라도에서 먼저 진행되었으며 전라도에서도 정읍의 대접주 손화중포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동학사》, 영창서관, 1940년판, 87페이지

이 모든 사실은 갑오농민전쟁전야에 전국각지에서 일어난 우리 인민의 반침략 반봉건투쟁이 전라도를 중심으로 급격히 장성하였으며 이 지역 동학 중하층 인물들 속에서 뛰여난 인물이 나오기 마련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전봉준이 농민군지휘자로 등장한 것은 다음으로 그의 남다른 기질과 관련되어 있었다.

전봉준은 1854년에 전라도 고창현 덕정면 당촌에서 서당 훈장 전창혁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서당에 나가 글공부를 열

[83p.]

심히 하였으며 13살때에는 《백구시》라는 한시를 지어 마을사람들을 크게 경탄시켰다.

그는 나이가 든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마을 서당 훈장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천자문과 《동몽선습》을 가르쳐주었으며 《시서백가의 설을 안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책을 읽었다.

전봉준은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였을 뿐 아니라 레의가 밝고 인망이 또한 높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평시에 마을사람들과 별로 상종하지는 않았지만 동리에 경사나 상사가 나면 의례히 찾아가 축하와 조의를 표하곤 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사람들은 그를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알고》 매우 존경하였다.

전봉준의 이러한 남다른 기질은 아버지의 영향 밑에서 싹튼 것 이였다.

전봉준의 남다른 기질은 동학접주시기에 더욱 드러났다.

그는 서당 훈장을 하면서 책을 많이 읽었지만 그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불우한 마음을 품고》 이따금 고부 양교리와 전주 구미리, 태인 동구천 등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다. 그러던 중에 1888년에 동학접주 손화중을 만나게 되어 동학에 입도하였다. 그의 동학입도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사상을 동경하고 부패한 봉건제도를 《개척》하여 보려는 립장에서 출발한 것이였다.

전봉준은 동학에 입도한 후 곧 고부지방의 동학접주로 되었다.

동학접주시기에 그는 고부군 궁동면 양교리에 살면서 주변의 여러 고을들에 왕래하였으며 《사람들 사귀여도 신사상을 가지고 개혁심이 있는》 사람들과 사귀었으며 때로는 서울에까지 올라가 안팎의 정세를 살피곤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가 자주 만나고 친교를 두터이 한 인물들은 대체로 호남의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김개남, 호서의 서장옥, 황화일과 같은 동학의 유력한 접주들이었다.

그는 또한 의술과 《복술》, 《풍수》도 보며 마을사람들을 규합하고 짬짬이 력대의 군사관계 서적들을 탐독하였다.

이 무렵 고부에서는 군수 조병갑의 가혹한 수탈만행을 저지시키기 위한 농민들의 항소투쟁이 두 차례나 벌어졌다.

당시 조병갑은 마을농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대신 항소투

[84p.]

쟁에 나선 농민대표들을 《란민》으로 몰아대고 그 투쟁의 앞장에 섰던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을 잡아가두고 학살하였다. 이것은 전봉준에게 있어서 커다란 충격이었다.

전봉준은 1893년 11월 이미 친교가 깊은 동학의 접주 송대화, 최경선을 비롯하여 20명의 동료들과 함께 사발통문을 만들어 돌리며 농민들을 봉기에로 추동하였다.

당시 사발통문에는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할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장차 농민군이 수행하여야 할 전략적 투쟁 목표와 함께 〈군략〉에 능하고 모든 일에 민활한 령도자》문제가 강조되어 있었다.*

*《인물근대조선사》(일문), 유잔가꾸, 1984년판, 162페이지

사발통문이 돌려진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894년 1월 10일 전라도 고부에서는 전봉준의 지휘밑에 농민폭동이 일어나고 얼마 후 봉기는 승리적으로 결속되었다. 그리하여 동학접주시기 전봉준의 남다른 기질이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890년대초 인민들의 반침략반봉건투쟁의 급격한 장성과 전봉준의 남다른 기질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그가 갑오농민전쟁시기 농민군의 지휘자로 등장하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전봉준은 갑오농민전쟁에서 농민군의 지휘자로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지난 시기 역사에서는 농민폭동이나 농민전쟁을 보통 그 지휘자의 이름과 결부시켜 부른 것이 적지 않다. 그것은 폭동이나 전쟁에서 그 지휘자들이 논 역할과 관련된다. 갑오농민전쟁을 전봉준과 결부하여 논하는 것도 바로 전쟁에서 그가 논 역할과 관련된다.

갑오농민전쟁에서 전봉준은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 각층을 불러일으켜 농민군대 오를 조직하고 그를 확대 강화하였으며 농민군의 투쟁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그들의 투쟁을 지휘하여 재외반동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85p.]

전봉준이 갑오농민전쟁에서 논 역할은 첫째로, 전쟁 전기간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일정하게 각성키시고 투쟁으로 불러일으킨 것이다.

1894년 2월 15일(양력 3월 21일) 전봉준은 백산에서 농민군 지휘부로 《호남창의대장소》를 조직하였고 여기에서 《창의대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이날 《보국안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갑오농민전쟁의 개시를 선포하였다.

전봉준은 갑오농민전쟁 초기부터 봉건적악정과 외세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에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불러일으켰다.

전봉준은 농민전쟁의 개시를 선포하면서 호남창의대장소의 명의로 격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정의를 위하여 여기에 이른 것은 그 본의가 결코 다른데 있지 않고 백성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우에 두려고 하는 것이다. 안으로는 악질관리들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려고 한다. 량반과 부자들 앞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 고을원의 밑에서 굴욕을 받는 아전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들이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에 일떠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동학사》, 영창서관, 1940년판, 112페이지

보는바와 같이 격문에는 농민군의 투쟁목적이 도탄에 빠진 인민들을 구원하고 나라의 독립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팎의 원수

들을 반대하는 반봉건, 반침략 투쟁에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떨쳐나서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

격문발표에 앞서 전봉준은 농민군의 행동강령도 발표하였다.

행동강령에는 당시 《왜놈과 서양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농민군의 투쟁목표와 단계별 과업, 행동규범 등이 명확히 밝혀져 있다.

농민군의 격문과 행동강령에 담겨진 이 모든 내용은 이때에 와서 비로소 제기된 것이 아니었다.

격문과 행동강령의 내용들은 이미 갑오농민전쟁 전야에 전봉준

[86p.]

과 그의 동료들이 이름으로 발표된 창의문의 내용에 기초한 것이었다.

창의문에는 국가의 근본인 백성이 쇠잔하면 국가는 망한다는 것과 보국안민의 방책을 생각하지 않고 제 몸만을 생각하면서 국록만을 먹는 자들을 만대한다는 것, 《국가의 멸망》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사를 맹세하고 일떠섰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

농민군의 격문과 행동강령은 충군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로부터 봉건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높은 투쟁목표를 제기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당시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절실한 요구와 념원, 애국애족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격문과 창의문이 전파되자 인민들은 《옳다. 이제는 잘 되었다. 천리가 어찌 무심하랴, 이놈의 세상은 얼른 망해야 한다. 망할 것은 얼른 망해버리고 새 세상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호남일대는 물론 전조선 강산이 고부 백산을 중심으로 흔들흔들하였》*다고 하였다.

*《동학사》, 영창서관, 1940년판, 109~114페이지

전봉준은 갑오농민전쟁의 초기뿐 아니라 그 후에도 중요한 계기마다 격문을 내고 보다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농민전쟁으로 불러일으켰다.

특히 전봉준은 1894년 9월 중순 투쟁에 다시 궐기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애국적 력량이 반일구국항전에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이 호소에 따

라 전라도에서는 고창, 태인, 남원, 금구 등 27개 지역에서 10여만 명의 농민군이 일시에 투쟁에 떨쳐나섰다.

전봉준은 또한 10월 15일 론산에서 경군이나 지방군을 막론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함께 싸울 것을 호소하는 격문을 발표하였다.

그때 경군과 지방군에 보낸 격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제 우리 동도(농민군-인용자)가 의병을 들어 왜적을 소멸하고 개화를 제어 하며 조정을 맑고 바르게 하고 국가를 안보할새 매양 의병 이르는 곳에 병정과 군 교가 의리를 생각지 아니하고 나와 접전함에 비록 승패는 없으나 인명이 피차에 상하니 어찌 불상치 아니하리오.

[87p.] 기실은 조선사람끼리 서로 싸우자고 하는바 아니어늘 이렇게 피줄이 같은 한집안끼리 싸움이니 어찌 애달지 아니하리오. …한편 생각건대 조선사람 끼리라도 도(사상-인용자)는 다르나 척왜척화의 뜻은 일반이라 두어줄 글로 의혹을 풀어 알게 하노니 각기 돌려보고 충군우국지심이 있거든 곧 의리로 돌아오면 상의하여 척 왜척화야 조선으로 왜국을 되지 않게 하고 동심협력하여 대사를 이루게 하올새라》

*

*《선유방문병동도상서소지등서》갑오 10월

격문에서는 《조선이 왜국이 되지 않기 위하여》 경군이나 지방군을 막론하고 모든 민족력량이 단결하여 싸울 것을 호소하였다.

전봉준은 또한 10월 16일 충청감사에게도 격문을 보내어 나라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싸움에 마음을 같이 합칠 것을 권고하였다.

전봉준의 이러한 애국애족적 호소는 민족량심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다. 그리하여 농민군을 반대하여 출동하였던 관군의 지휘자들까지도 적지 않게 농민군 측에 의거하여왔다.

당시 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하여 공주에서 수천 명의 군대를 편성하고 《창의장》으로 자처해 나섰던 선비 리유상이 전봉준을 찾아와 농민군에 합류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려산부사 겸 후영 영장이었으며 농민군 《토벌》대장이었던 김윤식도 역시 농민군에 의거해왔다.

이와 같이 전봉준은 갑오농민전쟁 초기에는 물론 전쟁 전기간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을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놀았다.

전봉준이 갑오농민전쟁에서 논 역할은 둘째로, 농민군을 조직하고 그 대오를 확대 강화한 것이다.

전봉준은 농민군을 조직하고 그 대오를 확대 강화하는 데서 동학조직을 리용하였다.

지난 시기 갑오농민전쟁이 《동학란》으로, 갑오농민군이 《동학군》으로 불리워 온 것도 이와 관련된다.

전봉준은 우선 농민군의 조직적 골간을 동학의 중하층선각자들로 꾸렸다.

[88p.]

1894년 2월 농민군의 지휘부 호남창의대장소가 조직될 때 전봉준이 총대장으로 되고 손화중, 김재남이 총관련, 김덕명, 오지영이 총참모, 최경선이 령솔장, 송희옥, 정백현 등이 비서로 되었다.

갑오농민전쟁의 개시와 함께 조직된 호남창의대장소의 지휘성원들은 원래 동학의 접주 또는 중하층 선각자들이었다.

그들은 일찍이 삼례집회와 보은집회 투쟁에 참가한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또한 전봉준과 함께 사발통문을 만들어 돌리고 고부농민축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가운데서도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은 오래전부터 전봉준과 특별히 교제가 깊은 인물들이었다.

전봉준이 농민폭동을 대체로 결속하고 3일 만에 사방에서 모여온 사람 수를 장학하여보니 손화중이 이끈 포에는 고창두령 오하영, 오지영, 림향로, 림천서 등의 령솔 하에 1,500여명, 무장두령 송경찬, 장경중 등의 령솔 하에 1,300여명, 흥덕두령 고영숙의 령솔 하에 700여명, 정읍두령 손여옥, 차치구 등의 령솔 하에 1,200여명이 모여오고 김개남이 이끈 포에는 태인두령 김락삼, 김문행의 령솔 하에 1,300여명이 모여오고 김덕명이 이끈 포에는 태인두령 최경선, 김제두령 김봉년, 금구두령 김사업, 김봉득, 류한필 등의 령솔 하에 2,000여명이 보여왔다.*

*《동학사》, 영창서관, 1940년판, 111페이지

그리고 전봉준이 백산에서 농민군을 조직할 때 그의 주위에는 손화중, 김개남을 비롯하여 16명의 령장급 인물들과 고창의 홍락관, 홍계관, 손여옥, 무장의 송문

수, 송진호, 장두일, 곽창옥, 령광의 최시철, 오정운, 고부의 정일서, 김도삼, 홍계삼, 정종혁, 송태화, 송계옥 등을 비롯하여 전라도안의 34개 지역에서 162명의 군장급인물들이 모였다.

전봉준은 이처럼 동학의 이름난 포접주들과 중하층인물들을 골간으로 하여 농민군지휘부로서 창의대장소를 구성하고 농민군을 조직하였다.

전봉준은 갑오농민전쟁시기 농민군대오를 부단히 확대 강화하는 데서 동학 포조직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것은 당시 동학의 포, 접들이 동학도인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교화하는 동학의 교단조직이었으며 동학에서는 이것을 통하여

[89p.]

일반 군중 속에 동학사상을 전파하고 동학도인들을 통일적으로 조직동원하여 왔기 때문이다. 전봉준은 농민군대오를 확대 강화하는 데서 시종일관 동학하층조직인 포를 리용하였다.

그는 갑오농민전쟁초기에 농민군의 군사조직체계를 포, 접을 기본으로 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대오를 확대하는 데서도 포, 접을 능숙히 리용하였다. 그리하여 농민전쟁 개시 이후 포덕에 의하여 동학에 입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농민군대오가 급격히 장성하였다.

전봉준은 또한 농민군이 다시 결기하였을 때에도 동학조직을 리용하여 호남과 호서 농민군의 연합을 실현하였다. 그때 전주, 고창, 태인, 남원, 금구를 비롯하여 전라도의 27개 지역에서 무려 11만 5,000명의 농민군(함평, 익산, 옥구 등 11개 지역에서 일어난 전라도의 중도파세력을 제외한 수자임)이 청주, 보은, 목천, 옥천, 서산 등 충청도의 25개 지역에서 일어난 10만 명의 농민군과 합세하였다고 한다.

그후 농민전쟁이 전국각지로 확대되어 최절정을 이룬 1894년 말경에는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농민군의 기포수가 339개 포에 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동학의 형성발전에 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년판, 277페이지

물론 우에서 열거한 자료들을 그대로 다 믿기는 어려우나 이 자료들은 농민군이 조직된 후 포를 단위로 하여 그 대오가 확대강화되어 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들은 전봉준이 체포된 후 공초자료에 의하여 더욱 확증되고 있다.

전봉준은 봉건 통치배들과 일본침략자들이 《접주와 접사는 본래부터 있었는가》라고 물었을 때 《기왕에 있었으며 혹 기포할 때 창설된 것도 있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내가 기포할 때에 거느린 것이다 동학당이었느냐》라고 물은데 대하여 《접주는 다 동학당이었고 나머지는 충의지사가 많았다》라고 대답하였다.

*《동학란기록》 하 535페이지

[90p.]

이와 같이 전봉준은 호남창의대장소를 내오고 농민군을 조직한 후에도 동학의 하층조직인 포를 리용하여 농민군대오를 부단히 확대강화하였다.

전봉준이 갑오농민전쟁에서 논 역할은 셋째로, 전쟁의 매 단계에서 일정한 전략전술을 세우고 농민군의 전투를 지휘한 것이다.

갑오농민전쟁시기 전봉준은 농민군의 행동강령을 비롯한 여러 공간을 통하여 장차 농민군이 수행하여야 할 전략전술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농민군편성과 함께 발표된 행동강령에는 군사를 몰아 서울로 쳐들어가 특권 양반들을 처단할 데 대하여 강조되어 있으며 전쟁전야에 발표된 사발통문에는 농민군이 고부를 장악한 다음 련이어 전주성을 점령하고 서울로 진출한데 대하여 강조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 농민군이 전략전술상 전주점령을 당면과업으로 제기하였으며 서울에로의 진격을 다음단계의 투쟁과업으로 내세웠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민군이 내세운 이러한 전략전술적 과업은 이 시기 내외에 조성된 정세와 적아간의 역량 관계를 타산한데 기초한 것이었다.

전봉준은 농민군을 편성한 직후 먼저 전주를 치기 위한 군사행동을 개시하였다.

3월에 군사행동을 개시한 농민군은 4월 4일 백산으로 기여든 300명의 감영군과 1,000여명의 보부상대를 격퇴하였다. 이에 앞서 부안으로 진출한 농민군과 태인 방면으로 진격한 농민군은 도교산에 집결하여 6일 밤부터 7일 새벽 사이에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과 큰 싸움을 벌렸다. 이때 농민군은 불의의 야간기습전으로 근 800명의 감영군을 살상하고 총통 600여정을 로획하였다.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한 농민군은 그후 당분간 전주공격을 뒤로 미루고 남진의 길에 올랐다. 그것은 당시 정부군이 전주로 밀려들고 있었으므로 그에 대처하자면 자체의 역량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농민군은 남진의 길에 올라 불과 열흘도 못되는 기간에 고창, 무장, 영광, 함평

을 들이치고 그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거듭 전과를 올린 농민군은 그 후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장성방면으로 진출하였다. 그것은 당시 농민군이 남진과정에 군세가

[91p.]

일정하게 강화되었으며 반면에 정부군이 농민군의 뒤를 따라 추격해온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4월 23일 장성군 월평장 황룡촌에서 농민군과 정부군사이에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다. 농민군은 초기에 정부군의 불의의 포사격과 기습을 받았다. 그러나 농민군은 대오를 수습하고 강력한 반공격으로 넘어가 수많은 정부군을 살상하고 대포 2문을 비롯하여 각종 무기를 로획하였다.

장성전투에서 승리한 농민군을 연이어 정읍, 태인, 금구를 거쳐 삼천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4월말에는 전주성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농민군의 전주성공격이 개시되자 성안의 관리들과 군대들은 황급히 도망쳤다. 그리하여 농민군은 전주성을 단숨에 점령하였다.

전주점령은 농민군이 전쟁개시이후 거둔 가장 큰 정치군사적 승리였다. 그것은 농민군이 장차 서울으로 진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농민군은 전주점령후 서울에로의 진격을 일단 중지하였다. 그 이유는 봉건 통치배들이 외세를 끌어들이므로써 나라와 민족 앞에 엄중한 위기가 조성된 데다가 봉건 통치배들이 《화의》를 제기해 왔기 때문이었다.

전봉준은 급변한 정세하에서 봉건통치배들의 회유책등을 일정하게 간파하였지만 나라와 민족 앞에 조성된 엄중한 위기를 생각하여 전주에서 정부군 측과 《화의》를 맺었다.

농민군의 서울에로의 진격은 《전주화의》 이후 농민군의 재궐기와 함께 다시 일정에 올랐다.

당시 전봉준이 농민군을 다시 궐기시킨 주되는 목적은 《일본군대를 쳐 물리치고 그 거류민들을 국외로 구축》하려는데 있었으며 한편 매국배족을 일삼는 리조 봉건정부의 위정자들을 소탕하려는데 있었다.

9월 중순 다시 투쟁의 길에 나선 전봉준은 10월 중순 전라도 농민군과 충청도 농민군의 연합을 실현하고 연이어 서울에로 진격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세웠다.

전봉준은 서울로 진격하는 주력부대의 배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김개남이 지

휘하는 부대 5,000여명을 전주에, 손화중, 최경선이

[92p.]

지휘하는 부대를 광주에 배치하고 전방을 맡은 최한규의 부대 3,000여 명을 공주의 유구방향으로, 우익을 맡은 김복용, 리희인의 부대 3,000여명은 목천 세성산으로, 좌익을 맡은 박덕철의 부대 7,000여명은 홍주, 레산 방면으로 파견하였다.

이때 일본침략군과 정부군은 농민군의 서울진격을 막기 위하여 농민군의 좌익인 천안군의 목천 세성산으로 공격해왔다. 그리하여 농민군과 적들과의 첫 싸움은 목천 세성산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농민군은 근대적 무기로 무장한 일본침략군과 정부군의 집요한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였으나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자기들의 완강한 투쟁기세를 시위하였다.

세성산 전투 이후 농민군과 적들과의 대결전은 공주에서 벌어졌다.

전봉준은 공주를 포위할 계획 밑에 주력부대는 리인 방향으로, 다른 한 부대는 공주남쪽 효포방향으로, 또 다른 한 부대는 공주 동남쪽 대교로 진출시켰다.

농민군 주력부대는 10월 23일 리인 역말 지역에서 공격해오는 적들에게 집중적인 포사격을 들이대어 적병 420여명을 살상하였으며 다음날에는 추격전을 벌려 성하영의 정부군을 격파하고 공주가 내려다보이는 봉황산으로 진출하였다. 이때 우익으로 진격하던 농민군은 무너미를 넘어 효포의 적들을 소멸하고 공주를 포위하였다.

이 무렵 일본침략군의 주력과 순무영의 선봉부대가 공주에 밀려들었다.

10월 25일 농민군은 적들의 공격 기도를 미리 알고 먼저 웅치계선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전투가 승부 없이 끝나게 되자 농민군은 공주남쪽 경천점으로 철수하여 10여일간 공주에 대한 재공격전을 준비하였다. 이때 전봉준은 김개남이 지휘하는 부대 5,000여명을 불러 주력부대와 합세하도록 하고 탄약공급과 대오정비에 힘을 넣었다.

그 후 농민군은 11월 9일 공주에 대한 제2차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우금치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된 공주에 대한 총공격전은 처음부터 매우 치열하게 벌어졌다.

농민군 주력부대는 우금치에서 일본침략군의 맹렬한 포사격을 무릅쓰고 수십차례 공격전을 벌렸으나 수많은 희생자를 내었다. 웅치와

[93p.]

유구 방면의 농민군과 김개남이 거느린 부대도 전투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보았다. 이러한 전투정황에서 농민군은 공주지역에서 전면적 후퇴를 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서울 진공작전은 결국 중지되고 말았다.

그후 전봉준은 농민군을 해산한 다음 적은 인원을 이끌고 순창군으로 내려와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던 중 농들에게 체포되었다. 서울에 압송된 그는 옥중에서 마지막까지 굴하지 않고 용감무쌍하게 싸우다가 1895년 3월 다른 농민전쟁지도자들과 함께 살해되었다.

전봉준은 갑오농민전쟁에서 농민군지휘자로서의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으나 농민전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지 못하였다.

전봉준은 시대적 및 계급적 제한성으로 하여 정확한 투쟁강령과 과학적인 전략 전술에 기초하여 농민전쟁을 옳게 지도할 수 없었다.

갑오농민전쟁시기 전봉준의 제한성은 무엇보다도 봉건군주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전봉준은 갑오농민전쟁초기에 격문과 창의를문을 통하여 농민군의 투쟁목표는 《인민들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함》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자면 《안으로는 탐학(탐욕이 심하고 포악한 것-인용자)하는 관리들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국왕에 대해서는 《인효자애하고 총명》한 인물로 내세우고 모두다 《임금의 덕화》를 입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동학사》, 영창서관, 1940년판, 109~112페이지

격문과 창의문에 반영된 이러한 내용들은 전봉준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그의 시대적 및 계급적 제한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전봉준은 농민군지휘자로서 투쟁의 길에 나서기는 하였으나 당시 인민들을 못 살게 굴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것이 개별적인 봉건관리들이라고만 생각하였지 그 근본화근이 국왕을 우두머리로 하는 봉건제도 자체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더욱이 그는 농민전쟁초기에 국왕이 농민군을 탄압하기 위한 모의를 벌리고 외국군대까지 끌어들이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로부터 전봉준은 전라도 여러 고을들을 치면서 악질적인 몇몇 관리들을 처단하고

[94p.]

이제 《어진 관리》가 나오면 인민들의 처지도 개선되고 나라의 위기도 극복되리라 생각하였다. 그리고 전주화의 이후에는 전라도 전지역의 농민군의 자치기관으로서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을 실시하면서도 악질적인 관리들을 처단하는데 그치고 국왕을 우두머리로 하는 봉건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집어엎지 못하였다.

갑오농민전쟁은 그 성격으로 보아 전국적 규모에서 벌어진 거족적인 반침략 반봉건 투쟁이었다.

일부 연구자들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농민전쟁은 전라도를 중심으로 하여 전국 8개 도의 85개 지역을 휩쓸었으며 투쟁에 참가한 농민군수는 적어도 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봉준은 갑오농민전쟁 초기에 전라도지역 농민군을 지휘하고 농민군이 제궐기한 시기에는 충청도농민군까지 지휘하였으나 전국적 범위에서 일어난 수많은 농민군부대들을 통일적으로 묶어세우고 군세를 강화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갑오농민전쟁시기 전봉준은 전라도 농민군 지휘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농민군은 전국적 범위에서 큰 규모로 일어났지만 조직적인 연계 없이 고립적으로 투쟁하게 되었다.

갑오농민전쟁시기 전봉준의 제한성은 다음으로 전략전술상 미숙한 것이었다.

전봉준은 전쟁기간 전략전술상 일련의 부족 점을 발로시켰다.

그는 농민군이 전주를 점령한 다음 그 기세로 서울을 들이쳐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전주에서 정부군 측과 화의를 맺고 서울에 대한 공격을 일시 중지하였다.

전주화의이후에도 일본침략군의 왕궁습격과 청일전쟁의 도발로 말미암아 서울을 공격하는데 매우 유리한 기회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전봉준은 전주화의이후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에 치중하면서 서울진격을 여러 달이나 미루어왔다.

그리고 9월중순 전봉준이 다시금 투쟁의 기치를 들었을 때에는 이미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일본침략군이 반동 통치배들과 결탁하여 반혁명적 공세를 취할 수 있게 된 시기였다. 이것은 전봉준이 전쟁과정에 범한 가장 큰 전략상의 잘못이었다.

[95p.]

전봉준은 또한 전술상 공격전과 방어전을 능숙히 배합하지 못하였다.

공주전투 때에만 하여도 그는 무장이 약하고 군세가 약한 농민군부대들을 근대적 무기로 무장한 적의 방어정면으로 수십 차례나 공격하게 함으로써 막대한 희생을 내게 하였다. 그리고 농민군이 공주계선에서 전면적으로 후퇴하게 되었을 때에는 적들의 추격에 대처하여 방어전을 능숙히 조직전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전봉준은 시대적 및 계급적 제한성으로 하여 정확한 투쟁목표와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전쟁을 옳게 지도하지 못하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갑오농민전쟁은 결국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갑오농민전쟁은 비록 승리의 열매를 매지 못하고 실패하였지만 전쟁기간 전봉준이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기치 밑에 농민군을 불러일으키고 농민군과 함께 피어린 투쟁을 벌린 것을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전봉준의 지휘 밑에 조직 전개된 갑오농민전쟁은 내외반동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조선인민의 애국정신과 용감성, 민족적 단결력을 크게 시위하였으며 인민대중이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나가려면 반드시 탁월한 지도자의 령도를 받아야 하며 모든 애국력량이 일치단결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근대 반침략반봉건투쟁사를 빛나게 장식한 갑오농민전쟁의 력사와 함께 갑오풍운의 총아 전봉준의 공적은 우리 민족사에 한 점의 불꽃으로 남아있게 되었다.